

2월 선교지 소식입니다.

"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 약 4:10 )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기에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 모두모두 평안 하신지요? 벌써 우리모두 2월의 끝 자락에 와 있네요.

이곳은 년중 가장 더운 계절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시원 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지요?

2월 소식 함께 나누시면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 탕가신학교 소식"

1월 소식 후 특별히 특색있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달 말에 신학교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매 해 이맘때에 열리는 하나되게하는 행사 입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3년동안 함께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막 중간 시험이 끝났으니 다음달 종강 준비가 시작 되겠지요?

= 탕가신학교 Staff 컴퓨터 지원.

탕가 신학교 학장님과 4명의 full time staff들에게(1명은 지난 해에 지원) Labtop computer 1대씩을 지원했습니다. 전액을 지원 한것은 아니고 2/1 은 매달 조금씩 값기로 하는 방식 입니다. 리빙 스톤 중학교 교사들에 비하여 신학교 사역자들은 월급이 아주 적어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이렇게라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서 마음 가벼움을 느낍니다.

@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

= 2015년 4학년 국가고시 결과.

작년 11월에 63명이 국가고시를 보았는데 이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탕가 주(약 270개 학교)에서는 4등을 했고 탄자니아 전역(약 5천개 중학교)에서는 99등을 했습니다. 첫 졸업생들이며 또한 4년전 처음 그들이 입학 할때의 수준을 생각하면 잘 했지만 지난 1-2년동안 학교 지도부에서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좀 아쉬움이 많은 성적 입니다.

1등급 (18명)2등급 (35명)3등급 (10명) 모두가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희망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몇 곳의 학교를 적어내면 정부에서 적당한 곳으로 학교를 정해 줍니다.

내년 부터는 리빙 스톤 과학 고등학교가 시작 될텐데 많이 응시 할 수 있으면 하는 희망 입니다.

수고한 교사들과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 리빙 스톤 페스티벌 소식.

개교 후 처음 시도한 행사 였습니다. 3일 계획으로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날은, 가까운 시내 공설 운동장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둘째 날, 학교 체육대회.

셋째 날, 학부모 초청의 날 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그만 억수같이 내린 비로 제대로 공연도 못하고 모두가 비만 흠뻑 맞고 철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 한국 견학 준비 소식.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부의 리빙 스톤 식구들이 한국 견학 길에 오릅니다.

교사 2명 학생 14명 이며 박선교사 부부와 영훈 선교사가 동행 합니다.

탄자니아에서 출발 하는 항공권이 너무 비싸서 이웃나라인 나이로비 케냐 까지는 육로를 이용하여 나이로비 공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미 항공권 예매가 끝났고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다양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섭외 중에 있으며 일부 교회들이 차량 및 경비 지원을 알려 왔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활동 용이한 숙소를 위해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번 방문이 학생들의 미래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탄자니아 한국 대사님 방문.

탄자니아 주재 한국 대사님께서 저희 학교를 방문 하셔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 미국에서 선교팀 방문.

미국 버지니아 제일 장로교회 최성은 목사님께서 3분의 교우들과 선교지를 방문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이었지만 양쪽 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 물품도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글을 통하여 버지니아 제일 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김진욱 목사님 방문.

한국의 인천 장로교회 김진욱 목사님께서 잠시 방문 하셨습니다. 인천 장로교회는 회교도가 다수인 탕가 지역에 지금까지 10개의 교회를 건축 하여 탕가지역 복음전파에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 입니다.

@ 서울 신성교회 교회 건축 헌금.

서울 노량진에 있는 신성 장로교회(담임 정민 목사님)에서 탕가 지역에 교회를 건축 하도록 1만불을 헌금 하였습니다.

지역이 확정 되는대로 건축이 시작 될것입니다.

새로운 달 3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풍성 하시길 축복 합니다.

2016년 2월 27일

탄자니아에서 박윤석 선교사 가정 드림.